

1987년도 춘계 학생 기생충검사 결과



한 인 수

1. 학생 기생충관리 배경

기생충은 직접 사람의 체내에 기생하면서 영양분을 탈취하여 허약한 체질이 되게 함으로써 또 다른 질병에 걸리게 하는 한편 나아가서는 노동력을 상실케 함으로써 본인에게는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손실을 주고 국가에는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60년대의 우리나라 기생충 감염율은 무려 80여%를 상회함으로써 기생충 왕국이라는 오명을 갖고 있었으며 수치와 불명예의 지표로 외국인에게 비취졌으나 때 맞추어 1966년 4월25일 기생충질환 예방법을 제정하고 법률 제1789호로 공포됨에 따라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초·중·고 학생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집단검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제 기생충 집단검사가 20여년을 경과하여 조직적이고 체계적이었던 집단검사의 결과가 뚜렷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학생의 경우 1970년도의 기생충 총란 양성률 74.1%에서 1987년 현재는 1.7%로 무려 72.4%라는 경이적인 감소 현상을 보여 주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학생 기생충 관리가 효율적으로 관리되어 온 성공적인 결과이며 세계 여러나라를 둘러 보아도 그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결과로 평가된다.

이런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까지에는 본 협회 임직원의 헌신적이고 봉사정신에 입각한 노력의 소산이라 평가되며 보사부 문교부를 비롯하여 각급학교 보건담당 교사의 후원도 큰 힘이 되었다고 믿어진다. 또한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 발전으로 이루어진 생활환경의 개선과 지속되어 온

“기생충은
직접 사람의 체내에 기생
하면서 다른 질병에 걸리게 하고
나아가서 노동력을 상실케하고, 국가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
하기도 한다.”

약제 개발의 성과도 한 몫을 해주었다고 생각되며 이제 우리나라의 기생충 감염율은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최종 0%의 목표에 성큼 다가와 있음도 실감하게 된다. 그 결과 1987년도부터는 대도시 학생 1회 검사로 학생 기생충관리 제도가 개선 되었으며 향후 수년간의 기생충 박멸을 위한 마무리의 첫째 작업이 시작되었다고 보여진다.

2. 학생 기생충 검사결과 현황

1987년도 춘기 학생 기생충 검사는 국민학교 6,974개교, 중학생 2,476개교, 고등학교 1,703개교를 대상으로 총 11,153개교에서 7,988,206명을 검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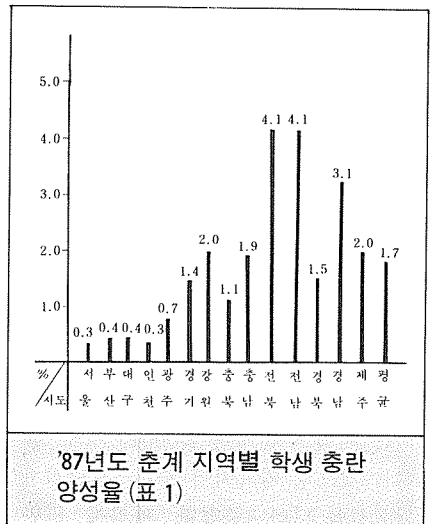
이중에서 138,158명이 총란 양성자로 1.7%였으며 인체에 가장 큰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진 회충은 0.8%로 나타났고 편충의 경우도 동일한 비율이었으며 간흡충은 0.05%를 기록하였는데 1986년 춘기 보다는 총란양성율은 1.2%, 회충과 편충은 0.6%, 간흡충은 0.01% 감소된 셈이다.

총란 양성율을 시도별로 보면 서울과 인천이 0.3%, 부산과 대구가 0.4%, 광주가 0.7%였으며 경기 1.4%, 강원 2.0%, 충북 1.1%, 충남 1.9%, 전북과 전남이 각각 4.1%, 경북 1.5%, 경남 3.1%, 제주가 2.0%로 나타나 강원, 충남, 전남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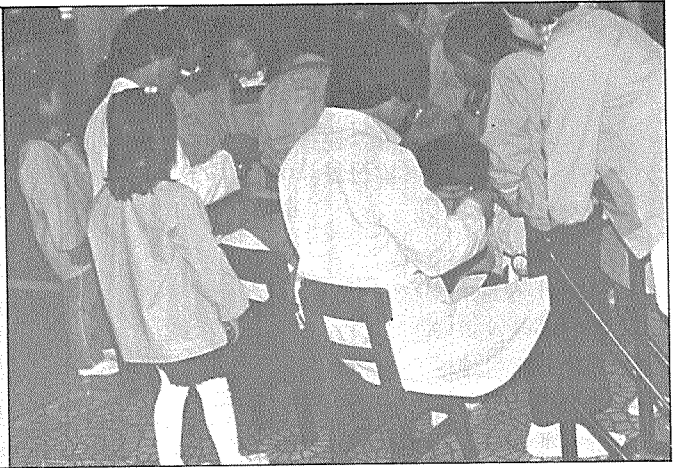
경남북, 제주도가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초·중·고별로는 국민학교 2.1%, 중학교 1.7%, 고등학교 1.2%로 나타나 1986년도 춘기에 비하여 국민학교 1.5%, 중학교 0.9%, 고등학교 0.7% 감소가 되는 현상을 보여주었다.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있는 회충의 연도별 감소 추세를 보면 1970년도에는 55.6%, 1975년도 38.7%, 1980년도 12.2%, 1985년도 2.0%, 1987년도 '춘기 0.8%로 18년간 54.8%가 감소되어 연평균 3.0%씩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요충은 유치원아 및 국민학교 학생에게 높은 감염율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까지 실시되어온 기생충집단관리제도의 효과를 짐작컨데 요충의 집단관리 제도가 시행되어야한다.



3. 전국 장내기생충 감염율 실태조사와의 비교

보사부와 한국건강관리협회가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전국 장내기생충 감염율 실태조사가 1986년도에도 제 4 차로 전국의 215개 조사연구에서 실시되었는데 43,590명을 검사한 결과를 보면 5,630명이 양성으로 총량양성율 12.9%를 나타내 학생의 1.7%와 비교해 볼때 20여년간 집단적으로 검사를 시행한 학생층과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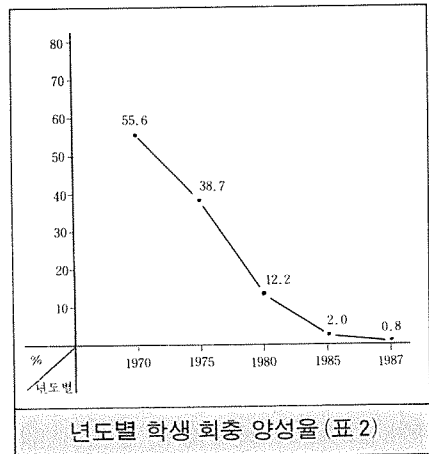
회충과 편충에서도 실태조사에서는 2.1%와 4.8%로 나타났는데 학생은 회충, 편충 모두 0.8%여서 집단검사 및 집단투약등 집단관리 효과가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태조사 분석결과에서는 아직도 기생충 감염율이 30%이상으로 추정되는 지역이 전국에 1,000개 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주민 집단검사의 필요성을 나타내주었다. 따라서 일반주

민의 경우에도 조속한 감염율의 감소를 위하여 기생충관리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작게는 자기 자신의 건강을 위하여, 크게는 국가 발전에 동참하는 지혜가 있어야 겠다고 생각한다.

4. 향후 추정되는 기생충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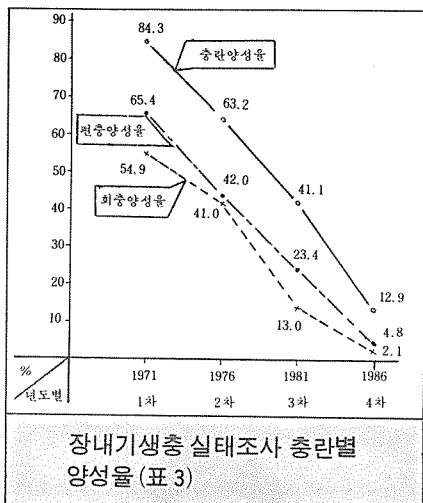
일반 장내 기생충은 상당한 감소 현상을 보여왔으나 감염 경로가 토양 매개성



기생충과 다른 요충의 조사결과를 보면 Seo, et Rim (1963)은 31.7%, Lee et al (1978) 등은 28.7%, Lim et al (1986) 등은 36.7%의 요충 양성율을 나타낸다고 보고 하였고 본협회의 1987년도 조사 결과에서는 2회 검사에서 대도시 6.9%, 농촌 20.1%, 평균 13.4%를 나타냈으나 5~7회 반복검사를 하여야 실제에 접근하는 양성율이 나타나게 됨으로 반복검사를 하면 양성율은 더욱 상승될 것이 명백하며 이로 미루어 볼때 20~25% 정도로 양성율이 추정되고 있다.

특히 요충은 유치원아 및 국민학교 학생에게 높은 감염율을 나타내고 있기때문에 지금까지 실시하여온 기생충 집단 관리의 성공사례로 효과를 짐작컨데 요충의 집단관리 제도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보며 일반 기생충의 경우도 투약을 중단하면 1년후 12~17%, 3년후 15~30%, 5년후에는 17~18%가 증가한다는 전문가의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때 향후 수년간 마무리 작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필요성을 느끼게한다.

한편 주민의 경우에는 윤충류의 관리와 함께 5대강을 중심으로 간흡충 관리를 확대 실시해 나가야 되겠다. 간흡충의



치료제를 과신하여, 약을 먹으면 되지않느냐는 판단에서 즐겨 회를 먹고 약을 복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오히려 비유행지역의 일반국민 층보다 감염율이 높다는 연구보고도 있어 대국민 홍보도 검사대상 확대와 함께 병행 실시하고 폐흡충, 장흡충과 조충류 관리에도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한다.

우리 다같이 기생충 박멸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기생충없는 조국건설에 동참하여야겠다.

(필자 = 건협조사연구부장)

● 선거표어 ●

'86에서 보인저력 선거에서 꽃피우자

- 한국건강관리협회 -